
월간 일본 수산 동향

2021년 11월

본 자료를 활용하실 경우, 해외수산협력센터
(044-868-7833)로 문의/확인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본 수산 동향

- | | |
|---------------------------------|----|
| (1) 자원 확보를 위해 게놈 편집 기술 활용 | 01 |
| (2) 계속되는 “어업 보조금 규제” 논의 | 03 |
| (3) 태평양 다랑어 쿼터 관리 그룹제 검토 | 06 |
| (4) IAEA - 일본 수산청 공동 사업, 수산물 채취 | 09 |
-

일본 수산 동향

(1) 자원 확보를 위해 게놈 편집 기술 활용

게놈 편집 기술이라는 키워드는 최근 일본 수산지에서 적지 않게 눈에 띄는 키워드다. 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식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로 보여 진다.

- 일본의 회전초밥 체인점을 운영하는 기업 FOOD&LIFE COMPANIES (오사카)는 게놈 편집 기술 플랫폼어 플래티넘 바이오 (히로시마)와 게놈 편집 기술을 활용한 수산물 품종 개량을 추진하는 리저널 피쉬 (교토) 와 공동 연구 실시
- 최첨단 기술 게놈 편집 등을 활용한 어류 품종 개량을 추진 수산자원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은 모두 대학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이며, FOOD&LIFE COMPANIES 가 경영자본을 투자,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어종 등 사회적인 수요를 조언
 - F&LC는 “병에 걸리지 않는 흑점줄전갱이”과 같이 리스크를 줄이고 필요한 어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목표
- 히로시마 대학 플래티넘 바이오와 교토대학 리저널 피쉬로 구성된 연구 개발팀이 게놈 분석을 하여 품종 개량 타겟이 되는 유전자를 특정

-
- 특정한 유전자에 맞춘 단백질만으로 구성된 게놈 편집 툴을 작성하여 어류에 대한 게놈 편집 처리를 진행하여 게놈 분석에 의한 우량개체 선택하여 계통화를 추진
 - 채택한 담백 육종법은 핵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게놈 편집 툴의 잔존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게놈 편집 처리를 한 당대 세대로부터 유전자 변형 생물이 아닌 것을 판단할 수 있음

*출처 : 미나토 신문

일본 수산 동향

(2) 계속되는 “어업 보조금 규제” 논의

20년 가까이 논의를 지속해온 어업 보조금 규제가 최종 장을 향해邁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11월 30일부터 개최되는 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에 어업 보조금 협상 최종 합의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외무성과 수산청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WTO) 가 30일~12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어업 보조금 규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초과어획,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유해 보조금” 금지가 논의 주제 중 하나
 - 선진국들은 초과어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 금지를 면하면서 보조금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개발도상국에도 상응하는 규제를 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어선 건조나 유류비 등 어획 능력을 어획능력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이 오히려 초과어획·난획이나 IUU 어업으로 이어져 유해하다고 국제사회에서 비난 받아 왔음
 - WTO에서는 2001년부터 어업 보조금 규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UN이 15년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초과어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조금 금지를 명기하여 본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었음

- 일본 외무성과 수산청에 따르면 일본 측의 우선사항은 “금지되는 보조금은 실제로 초과어획 능력, 초과어획으로 이어지는 것에 한정한다”는 것
 - 일본은 자원관리 강화 등의 수산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필요한 보조금은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미국 등의 선진국은 자원관리를 적절히 실시하여 초과어획을 초래하지 않는 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허용하자는 입장
- 자원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이나 자본이 부족한 개발 도상국의 경우,
(1) 자원관리가 적절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의 보조금을 금지하는지 목록화해주길 희망, (2) 엄격한 자원관리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 감면을 받고 싶음, 감면 대상은 개발 도상국 일률로 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감면을 희망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선진국은 규제 감면을 모든 개발 도상국에 적용하지 않고, 각국에서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태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어업 보조금 협상 최종 합의안 정리하고 있음
 - 난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도 등이 요구하는 개발 도상국을 위한 특례조치로는 사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단을 유보

- 최종안은 어떤 나라라도 초과어획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원칙 폐지를 명기
 - 한편 어업자원을 유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보조금을 인정한다는 규정도 들어가 있음
 - 개발 도상국에 대해서는 폐지까지 이행기간을 도입,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 0~25년으로 각국의 주장에 크게 차이가 있음
 - 어획량의 세계 세어 10% 이상인 국가를 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넣고, 중국을 포함시키지 않는 점도 명확히 했음
 - 최종안을 정리한 규정 협상 그룹 의장은 "유해한 어업 보조금의 위협은 해마다 늘어나고 사람들의 식량 안전 보장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강조
- 이번 WTO 회의에서 20년간 이어져 온 어업 보조금 협상 결착을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음

*출처 : 미나토 신문

일본 수산 동향

(3) 태평양 다랑어 쿼터 관리 그룹제 검토

태평양 다랑어 자원은 일본 수산업계에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각화되고 있다. 어획 쿼터 관리 그룹제도 그러한 방향에서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 일본 경제조사 협의회 제3차 수산업 개혁위원회는 도쿄에서 제6회 회의를 개최 (11월 19일)
 -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관리에 그룹제를 도입하는 부분이나 어획 보고의 정도와 신빙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
 - 참가자로부터 연안어업이나 중대형 선망어업 등 어법 간의 경계를 넘어 그룹제를 도입하는 것이나 어선, 양식장에 감시원을 배치할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의 의견이 잇따름
- 어협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어업인에게 쿼터를 할당할 경우, 온라인화 되어 있지 않아 신속히 쿼터를 이양할 수 없고 쿼터를 다 쓰지 못하고 남게 되는 양이 발생
 - 남아서 재배분된 쿼터를 올림픽 방식으로 어획하면 어가가 상승하여 적절한 시기를 벗어난 시기에 어획을 실시해 과도한 투자와 쓸모없는 조업을 하게 됨

- 이양할 때마다 대신 승인이 필요해 무상으로 쿼터를 이양할 때에도 매번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참가한 일부 위원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온라인으로 유상으로 이양할 경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쿼터도 원만하게 소비할 수 있으며, 초기 배분 시 불공평이 해소될 수 있음을 설명
- 연안 어업이나 정치망과 같은 소규모 어업인과 대규모 어업에 해당하는 선망 어업자와 함께 그룹을 형성하여 쿼터를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서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 감시원 승선, 비디오 카메라 탑재로 어획량이나 양식량을 검증하는 것이 할당제도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
- 연안어업자들은 선망에서 쿼터를 공출하게 되면 비교적 용이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검토할만 하다며 선망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
- 한편 선망이 어획 쿼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먼저 선망과 소형어선이 각각 그룹을 만들어 그룹간에 어획쿼터 양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음
- 다른 어법 간에는 어획량을 유연하게 융통시킬 수 없는 체제가 일본 수산행정의 특징이라는 지적이 있어, 어법의 경계를 초월하여 형성한 그룹에서 쿼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됨

- 본 회의에 참석한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 국제과 미와 츠요시 과장은, 1월부터 태평양 참다랑어 대형어 (30kg 이상) 개별 어획 할당제도 (IQ)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양륙 시의 감시방법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제시
-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감시체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유통 경로가 있어 첻바퀴 돌기처럼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어야 함
- 해상에서 계측한 어획량 보고나 전자 보고 추진 등의 방침을 검토하고 있음

*출처 : 미나토 신문

일본 수산 동향

(4) IAEA - 일본 수산청 공동 사업, 수산물 채취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수산청 공동 사업으로 후쿠시마 현의 수산물을 시료로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빙성 평가를 진행한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후쿠시마현 근해의 수산물을 채취하고 처리를 확인했음
- 이번에는 IAEA 환경연구소 2명 + 프랑스, 한국, 독일의 분석기관으로부터 각각 1명씩 참가하여 총 5명이 참가
 - 일본 이외의 국가도 참가하여 해역모니터링 데이터 신뢰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함
- 시료 채취 및 처리 후, IAEA, 일본, 프랑스, 한국, 독일의 참가분석기관이 분석을 실시
 - IAEA에서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신빙성 평가를 실시
 - 시료 채집 및 분석에 제공되는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어획된 수산물 중 몇 가지 종을 예정하고 있음

*출처 : 일본 수산청, IAEA 보도자료